



2022학년도 1학기
<심화글쓰기:자기성찰적글쓰기>
02분반 문집



<심화글쓰기: 자기성찰적글쓰기> 02분반
2022년 6월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이 문집을 읽는 분께

이 문집은 2022학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 선택교양 <심화글쓰기: 자기성찰적글쓰기> 02분반 수강생이 작성한 글을 엮은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말을 고르고, 글을 썼습니다. 서로의 글을 읽으며 교감하였습니다. 따끔하고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집필한 글 중 필자가 직접 고른 작품을 다듬어 문집으로 묶었습니다.

‘나’에 대해 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집을 읽는 분께 우리의 眞情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목차

점이 아닌 원 - NIKE	4
케르베로스와의 산책 - 김유자	6
어른은... 외로운 거야~ - 네오	21
내 안의 모든 긍정과 부정을 담아 - 리스너Listner	23
삶의 이유가 어딴어! 그냥 사는 거지! - 보이후드	25
나도 변하고 싶다 - 빛나리	30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 새맨	32
예민의 흔적 - 선선	35
할아버지도 SKY는 알지 - 스트롱미니	38
끝없이 싸우는 이 - 윤목	40
어른이 된다는 것 - 이감	43
삶이 흐르는 물이라면 나는 - 티라미수tiramisu	45
내가 쓰는 모든 것들은 - 포레니티	47
와인을 꿈꾸던 물 - 하얀솜베개	50
감정과 열망 - 해환	54

※ 알려두기

- 이 문집은 고려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심화글쓰기: 자기성찰적글쓰기> 02분반 수강생의 글 중, 필자가 교양교육원 홈페이지 게시를 수락한 작품을 골라 묶은 것입니다.
- 글 실는 순서는 필자명의 가나다순을 따랐습니다.
- 필자명은 모두 필명입니다.

점이 아닌 원

NIKE

삶의 전환점이란 무엇일까? 전환점이라는 단어는 나에게서는 매우 생소하게 다가왔다. 여태 나와 타인에 대한 고민은 수도 없이 했지만 내가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있겠지라는 생각에 시험 공부를 하다가 생각해보고, 자기 전에 주제를 곱씹으면서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내 삶에 뚜렷한 전환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내가 전환점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무작정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게 되었다.

전환점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를 뜻한다. 내가 너무 이공계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에는 물리법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방향과 빠르기를 바꾸는 힘과 가속도,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에너지에 대한 개념들... 옛날에 배운 것들이 생각나 잠시 흥미로워하고 있는 사이 삶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삶과 물리법칙, 삶을 레이스 경주로 흔히들 비교하기 때문일까? 은근히 어울리는 두 단어였다.

물리적으로 물체의 방향이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힘(External Force)이나 열(에너지의 일종)이 가해져야 한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내 삶의 방향이나 상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나에게 힘이 가해져야 한다. 그 힘이 나를 가속시키든, 감속시키든, 방향을 바꿔주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나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설령 그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힘이 가해진 시간과 관계없이 그 시작점이 바로 삶의 전환점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를 바꾸거나, 한순간에 나를 바꾸거나 상관없이 시작점이 전환점인 것이다. 새로운 삶의 전환점에 대한 정의로 내 짧은 삶을 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작점이 존재했다. 그중에서 이제는 내 삶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된 운동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은 나를 예체능 쪽으로 키우고 싶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반갑게도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심지어 영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하기도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내가 다닌 학원은 미술학원하고 축구클럽이 전부였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것이다. 아무런 과외와 학원이 없이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전교 1등을 해오니 중학교 때부터는 부모님이 여기저기 수학, 과학 영재교육을 보내기 시작하셨다.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는 아이 중 한 명이 되었고, 그 이후로 나는 운동과 멀어지게 되었다.

나의 이과적 재능과 학원의 결과물은 나를 경기영재고등학교로 보내주었다. 전국의 이과적으로 날고 긴다는 친구들이 있었고, 앞으로 공부만 하겠다는 생각에 합격한 당시에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오히려 고등학교 동창들은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할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특히 학교 내의 헬스장과 트레이너 선생님은 나에게 헬스 트레이닝에 눈을 뜨게 해주셨다. 다시 시작한 농구, 축구, 탁구, 스노우보드 등의 각종 운동과 헬스 트레이닝은 공부에 지친 나에게 활력을 넣어주었다.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하나씩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운동이란 그저 하나의 탈출구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운동 사랑과 습관은 대학교 와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집 앞 헬스장을 등록하고 꾸준히 헬스를 하였고, 농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농구를 즐겼다. 겨울에는 매년 가족과 스키장을 가서 보드를 탔다. 그 결과 좋아진 몸은 평소에 어머니가 사준 옷만 입던 나를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고, 낮을 가리던 나를 대학에서 수많은 농구인들과 안면을 틀고 친해지기 시작했다. 또 가족과 얘기를 안 하던 내가 가족과의 하나의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아버지와 처음으로 훈계가 아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3년 동안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돌고 도는 만남과 일상에서 운동은 그저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었다. 운동이 아니더라도 게임, 노래 감상, 친구들과 노는 것 등등 많은 여가 활동 중 하나였다. 반복되는 하루하루 사이에서 변화를 찾기 어려웠고, 변화를 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생긴 운동 습관과 운동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인이 되고 나서 나를 바꿔놓고 있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사건, 한순간의 깨달음이란 건 내 삶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운동은 점이 아니라 큰 반원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케르베로스와의 산책

김유자

S#.1 프롤로그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계단, 그리고 그 끝에 놓인 어떠한 대문 앞. 웅장한 음악과 함께 화면 Fade in.

너무도 신성해 보이는 거대한 대문의 디테일이 화면에 담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상상한 사후 세계가 벽화로 그려져 대문을 장식한다. 익숙한 종교의 주장들과 인간 세계가 상상하는 사후세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각종 신화 속에 등장하는 천국과 열반, 지옥과 발할라가 화면을 수놓는다.

그 위로 효과음과 함께 자막 등장. <2022년 5월 9일, 김유자 사망>

대문이 룡샷으로 잡힌다. 문에는 손잡이도 없고, 그 크기와 위엄은 압도적이다. 한 폭의 그림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루브르 박물관 하나가 다 들어있는 듯하다.

대문이 여러 각도에서 비치며 음악이 고조될 때, 엄숙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는 이질적인 소리가 들린다. 허리를 숙여 무릎을 잡고 있는 손이 클로즈업된다.

유자 (헉헉거리며) 휘우! 와... 드디어 다 올라왔네. 앵 뭐야 허벅지 아프네.. 죽어서도 통증이 느껴지는 건가? 아니면 경험적으로 착각하는 건가? 차이나... 아니 일단 올라오라고 쓰여있어서 올라왔는데 여긴 또 뭘까. (문에 가까이 다가가서는) 이야... 문이! 키야... 오 별게 다 그려져 있네? 우와...

목소리 (말을 끊을까 주저하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저, 예뻐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는 죽음 컨설턴트 케르베로스입니다. 유자 님의 죽음 여정을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유자 (두리번거리며) 어? 그 머리 3개 강아지? 어디 계세요?

목소리 앗! 저는 대문 안으로 들어시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서약을 해주셔야 대문이 열리는데요, 제 말을 따라 주세요. “나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여정에 진심으로 임하겠습니다.”

유자 (망설임 없이) 나는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의 여정에 진심

으로 임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침묵을 못 견디고) 자, 열려라… 참깨?

S#.2 전개 시작

(효과음) 쿵. 끼이이이이익. 드라이아이스 연기를 풀풀 풍기며 대문이 열린다.

그 안에서 거대한 강아지의 실루엣이 보이는 듯하지만, 연기가 걷히자 무릎 정도의 높이까지 오는 강아지가 서 있다.

유자 (3쌍의 눈 중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른 채로) 오.. 처음 뵈네요. 인상이 생각보다 선하세요. 우리 집 강아지 닮았네, 보고싶게… 케르베로스 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케르베로스 (똥망똥망하게 눈을 뜨며) 네 그러시죠! 저희 시간이 많지 않으니 출발을 해볼까요? 저희는 지금부터 유자님 인생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편하게 유자님은 삶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유자 오, 지옥 생각보다 스무스하네요? 귀여운 머리 3개 강아지랑 산책하면 된다니…

케르베로스 (화들짝 놀라서 뛰어오르며) 여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으로 향하는 길 그 자체입니다. 인간들은 자주 주마등이라고 부르더라구요. 아니, 그래요! 제 존재가 인간 세계에서는 곡해되고 있더라구요? 참나.

유자 아, 그럼 제가 아직 죽지는 않은거구요? 좋습니다! 흠. 출발알~ 처음엔 뭘 보여주려나.

케르베로스 들어가고 싶으신 방부터 하나씩 가볼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S#. 3 첫 번째 방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 유자는 복도가 어딘가 익숙한 듯하다. 학교에서 16년을 보내서인지, 흔한 한국 교육기관의 복도 같다고 생각한다. 맨들맨들한 타일 바닥에 오른쪽엔 창문이, 다른 한쪽에는 방들이 있는 듯했다.

유자의 발걸음이 멈춘 것은 바로 이곳에 오기 직전의 시간이 담긴 듯한 방, 가장 먼저 등장한 방이었다.

방문에는 <자취방, 2022.05.08.>이라고 쓰인 작은 팻말이 붙어있었다. 유자는 급 자신이 방을 청소했었나 궁금해졌다.

유자 (떠올리려 노력하며) 내가 방 청소는 하고… 왔나…? 궁금해져서

요, 혹시 여기 들어가 봐도 되나요? 들어가면 바로 저 때의 제가 보이는 건가요?
케르베로스 네,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음 문을 열고 발을 딛으면 쑥 빨려 들어가니 조심하사…!
유자 (다 듣지 않고 발을 내디디며) 우어어어어어억!

3초가량 미끈거리는 미끄럼틀을 타는 듯 빨려 들어가다가 어딘가에 도착한다. 그곳에는 하루 전,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는 유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흔한 학교 근처의 조그만 자취방에는 유자의 취향이 가득 담겨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찍은 인생네컷, 포스트잇에 써놓은 생활 규칙들, 그리고 그림엽서와 포스터가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작은 방에는 어울리지 않는 32인치짜리 모니터의 한 쪽에는 유자가 좋아하던 유튜브의 브이로그가, 다른 한쪽에는 회사 업무 창이 띄워져 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는 유자의 흠 오피스 환경이 보인다.

유자 (2022) (중얼중얼) 아 진짜 이거 언제 다 하나. 하이고오오… 학교 과제도 있고, 인턴 일도 있고, 무자비하네 진짜… 어찌냐 미치겠네. 나 이거 발표 진짜 잘하고 싶은데…(딩딩딩- 컴퓨터에서 울리는 콜을 받으며 목소리가 확 올라간다) 아, 네 엘리님!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에요? 와 정말요. 오랜만이네요. 요즘 일은 쫘 어떠신가요? 아 네, 네 (Fade out)

유자 (현재) 에휴 마지막까지도 열심이네? 진짜 잘하고 싶어하네. 기특하다.

유자 (2022) (Fade in) 네, 그럼 다음에 빌게요! 네, 네에~ (통화 종료 후 침대에 누워있는 애인에게) Wow. Woooow. 나 너무 피곤해. 아니 이거 어캐하지 징짜? 나 배고파아아.

애인 언제 끝나? 나 배고파.

유자 (2022) 우웅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골라골라~ 마스크 챙겼어? 나가자 이제!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하루 전 유자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현재의 유자의 표정이 복잡미묘하다. 그리움, 후회, 서러움, 아쉬움 등 오만 감정이 교차하는 듯 하는 표정이다. 케르베로스가 문 옆에 있는 ‘빨리감기’ 버튼을 눌러 과거의 유자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의 속도를 올린다. 바깥에서 해가 지면서 방은 서서히 깜깜해진다.

유자 (2022) (통화를 하며 현관문을 연다) 아이고~ 배부르다. 아니 꿈이네 콩나물국밥은 진짜 미친거같아. 그치그치. (신발을 벗느라 힘을 주며) 진짜로…! (신발 다른 한 짝도 벗으며) 잘… 먹었어. 와줘서 고마워! 응 잘 들어가고. 나두 사랑해. 영. 안녕! (통화를 끊는다) 아이고오…

유자는 머리를 한 번 넘기고 침대에 눕는다. 하루의 피로가 몰려온다. 너무 과하게, 가열차게 산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가열차게 살면서도 동시에 참 불안해한다는 생각도 한다.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평생 쫓기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하는 것일까, 등의 생각이 하나씩 쌓인다. 매섭게 기운 빠지는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평생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쉬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시작된다. 당장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코딩 과제도 있고 일도 있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 굴러서라도, 기어서라도 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은 손끝 하나도 움직이기 어려운 것 같은 기분이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불안하지라도 말든가 싶다. 이 불안은 비교에서 오는 걸까?

우리 모두에게는 종종 도망칠 구석이 필요하다. 세상을 상대하기 위해 지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모퉁이가 필요하다. 나 자신의 꿈과 이상마저도 가끔 무겁게 느껴질 때, 나 자신으로부터도 숨을 수 있는 그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꿈이더라도 그 아래서 말라가기 쉽다. 그 그늘이 오늘 유자에게는 안 보인다.

유자 (현재) 아이고… 안쓰럽네. 이렇게 다음 날이 없을 줄 알았더라면 그냥 와인 한 잔에 좋아하는 노래나 들으면서 책 좀 읽고 잤을텐데. 애쓴다 나.

유자 (2022) (핸드폰을 두드리며, 통화 연결음이 울린다) 어, 할머니~

할머니 유자야! 아이고 내 강아지가 웬일이야!

유자 (2022) 아니 그냥~ 하루 잘 보냈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나는 잘 있지! (눈물이 왈칵 나온다)

할머니 어? 우리 강아지 우나? 우리 강아지가 왜 울어!

유자 (2022) 에이 아니야! 진짜! (흐쩍거리며) 그냥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헤헤..

할머니 우리 강아지, 학교랑 회사 같이 하느라 너무 힘들구나. 아이고 할머니가 안 그래도 너가 걱정되가지고 요즘… 그래도 두달만 있으면… (Fade Out)

유자 (현재) (지친 표정으로 케르베로스에게) 이제 나가요 우리도.

S#. 4 다시 복도로

케르베로스 (조심스러워하며) 되게 지치셨나 봐요.

유자 참, 저도 제가 선택한 길에서 열심히 가꾸고, 인정받고, 결실을 맛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편이지만 사실 일은 일이고. 인생을 즐기는 방법은 너무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두 코로나 몇 년. 동안 자기 보물들을 하나둘 내어주고 산 것 같아. 방구석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그려가면서 시름시름...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해나가는 느낌이었어. 뭐 지금은 쯤 상황이 안정된 것 같지만, 학교 캠퍼스로 돌아오고 나서야 내가 생기를 꽤 오래 잃었었구나 깨달았단니까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노력해도 불안했었어. 그걸 나눌 친구들을 마음 편히 못 봐서 그랬나? 내가 보기엔 내 상상 속의 천재만재들이랑 나 자신을 끝도 없이 비교해서 그랬던 것 같아. 혼자 열심히 쉼도우복싱했어. 참 웃기네. 괜히 그랬어, 괜히.

케르베로스 코로나 전에는 어땠어요? 그 시절도 소개해주세요.

유자 좋아, 가보죠! 거의 전생 같네.

둘은 복도로 나와서 바로 옆의 방으로 들어간다. 방문에는 <제주도, 2019.07.20.>이라고 쓰여있다.

S#. 5 두 번째 방

외국에서 온 것 같은 스윙 재즈 밴드가 공연 중인 제주도의 한 체육관에 왔다. 사방에 로맨틱한 조명이 깜빡이고 사람들은 둘둘이 짝을 지어 발에 땀나게 춤을 추고 있다. 마치 1920년대 미국의 혼한 주말 무도회장을 보는 것 같이 다들 한껏 꾸며 입고 온 모습이다. 춤을 추기 위해 제주도에 모인 사람들답다.

잠깐 곡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체육관 가운데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모인다. 재즈 뮤지션들이 서로 즉흥적인 가락을 주고받듯이, 댄서들이 자신의 춤을 뽐내는 잼 서클(jam circle)이 만들어진 것이다. 곡의 하이라이트 쯤 나갈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달려 나가서 행복하게 춤추는 유자의 모습에 스포트라이트가 쏠린다. 사람들은 제각각의 환호를 해주고, 한 코러스가 끝날 때 즈음 다른 댄서에게 플로어를 넘겨주고 유자는 다시 돌아온다.

유자 (2019) (옆의 친한 언니에게) 진짜... 미쳤다 오늘 음악.

유자 (현재) (케르베로스에게) 저 때는 재즈가 전부였어요. 매일같이 빈티지 스윙재즈 찾아 듣고, 연구하고, 학교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춤 학원에 돈과 시간 다 쓴 것 같아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저보고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않고 평일 저



넉과 주말엔 항상 제가 연습실 혹은 재즈바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 정확도가 98%였어요.

유자 (2019) (새벽 내내 춤을 추고 터덜터덜 방으로 걸어들어와 엎드린 채 일기를 쓴다) “콘트라베이스가 던지면 색소폰이 받아준다. 그들의 콜-앤-리스폰스를 들은 나와 파트너는 서로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을 걸어준다. 라이브 재즈 밴드가 쌓아 올리는 음들이 눈 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너무도 신나게 순간에 빠져 있었다. 춤추며 사귀 새로운 친구는 내게 ‘a youthful spirit and an old soul’ 이 있다고 한다. 춤을 출 줄 아는 것은 정말이지, 행복한 일이야.”¹⁾

케르베로스 그렇게 좋아하시던 춤을 코로나 이후로는 못 추셨나요?

유자 (현재) 아니, 찼죠. 근데 이제 연습실에서만 계속 갈고 닦았죠. 사실 내가 프로 댄서도 아닌데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니던 학원에도 진짜 거금을 내고 댄스 크루에 들어가서 연습실에 살다시피 했었는데, 취미로만 할 때와는 달리 크루에 들어가니 투잡을 뛰는 기분이었어요. 매번 눈치 보고, 더 스윙에 미치지 못한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인턴을 하면 또 하는 대로 쓰리잡이 되었던라구요. 22년 제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너무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크루의 방향성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나왔었어요. 근데 취미마저 최고로 잘해보겠다는 요상한 욕심을 버리고 나와버리니까 너무 속 시원한 거 있죠? 저는 제가 향유하는 예술인 스윙을 해내야만 하는 연습 루틴으로 만들고, 그 루틴에 구속되는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죽었으니 어차피 글렀네요 뭐.

케르베로스 일찌감치 사랑하는 취미를 찾으셨지만 한번 폭 빠진 이후 거리를 조정중이셨군요. 학교에서는 그럼 많은 시간을 못 보내셨을 것 같아요.

유자 (현재) 그래도 캠퍼스에서 가장 행복했던 1년은 있어요.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그랬어요.

S#. 6 세 번째 방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건물은 학생회관이다. 비록 엘리베이터는 종종 삐그덕거렸으며 벽은 통일성 없는 학생들의 벽화 그림들로 가득하지만,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속 가장 우리다울 수 있는 공간이다. 마음껏 실수하고 또 도전하고, 이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날이 따뜻한 어느 날의 오후 1시 55분, 유자는 수강 신청 착오로 별로 듣기 싫은 수업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하루쯤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1) 김유자 일기, 2019.07.20.



그래도 가서 흘러라도 들어야지 하는 마음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새 시간이 58분이 되었다. 햇살이 너무 따스고 잠은 솔솔 오고... 에라, 모르겠다! 유자는 냅다 동아리 방 소파에 누워버린다. 여기 누워서 조금만 쉬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 글을 쓰면 죄책감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때, 동아리 방에 기다리던 친구가 들어온다. 수영 수업을 끝내고 돌아온 모양인데, 손에 예사롭지 않은 것이 들려있다.

유자 (2019) 어, 소현아 왔어? 우와 타코야끼...

소현 어? 뭐야. 수업 안 갔네?! 헤헤 나랑 타코야끼 먹자. 아니 내가 오는 길에 진짜 웃긴 일이 생겼다? 아닌가 안 웃기려나. 아무튼 그 왜 나 지금 일본에 가있는 친구 있잖아, 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3초 만에 받는 거야. (Fade out)

유자 (2019)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타코야끼를 열심히 먹는다) 아 아 아 어우 느껴어!!!!!! (너무 뜨거워) 야 진짜 맛있다. 어 그래서?

유자 (현재) 저 때는 진짜 글을 참 많이 썼어요. 현재의 견해나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도 누구 하나 무시하거나 재를 뿌릴 위험이 없다는 믿음이 생기자 우리는 무적으로 푹푹 멍쳐서 글을 쓰고 읽고 서로 피드백을 나눌 수 있었어요. 서로 어두운 구석을 있는 그대로 봐주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다들 자연스레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열고 환기를 시킬 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케르베로스 듣는데 그런 집단은 만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엄청 위안이 되었을 것 같네요.

유자 (현재) 네. 함께 중앙 광장 잔디밭에 누워서 수다 떠는 그 시간이 아마 제 대학 생활의 가장 편하게 웃은 순간들인 것 같아요.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래요.

소현 (다시 소현의 목소리로 초점이 이동. 손벽을 짝 치며) 아 맞다. 이번에 내가 일본 다녀오면서 사온 조니워커 우리... 죄금만 곁들일까? (결연하게) 어때.

유자 (2019) 뭐야. 왜 물어봐. 얼른 꺼내!

유자 (현재) 맞아요 저 때 우리만의 전통이, 비행기 탄 사람은 무조건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사 오는 것이었어요. 퇴고 진지하게 할 때는 밤 지새워서 글 읽고 써야 하는데, 그 때 나름 재미 요소가 이 위스키였죠.

케르베로스 유자님은 어떤 위스키를 사오셨었나요?

유자 (현재) 그럼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나선 여행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S#. 7 다시 복도로

복도에 나온 유자와 케르베로스는 알록달록한 색의 방문을 지나간다. <마다가스카르, 2018.09.> <홍콩, 2018.04.> <태국, 2019.07.> <동유럽, 2018.08.> <하와이, 2018.05.> 화려한 여행 기록에 눈이 휘둥그레진 케르베로스가 묻는다.

케르베로스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네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유자 아, 그건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근데 우선 여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이유부터 다시 한번 보고 가고 싶네요.

케르베로스 (혼자 투덜거리며) 퇴근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내 표정을 다시 환히 바꾸면서) 네, 그럼 저 거무죽죽한 네 번째 방부터 가봐요 우리!

S#. 8 네 번째 방

<강남역, 2017.>이라고 쓰여있는 방문 앞에서 유자는 큰 숨을 들이마신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들어선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책상이 쪽 나열된 커다란 열람실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까만 뒷통수들이다. 유자는 익숙한 듯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간다. 그곳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표정의 스무 살 학생이 앉아있다.

유자 (2017) (부스럭거리며 과자를 입에 머금고 중얼거리다)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²⁾ … 28번 근거는 여겼고… 음… 음…

케르베로스 (놀란 표정으로 소근거리며) 오 유자 님, 수능 공부를 다시 하고 계신 건가요?

유자 (현재) 하… 그쵸. 막상 대학에 와서 한 학기 신나게 놀고 나니까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 성취 지향적인데, 그 당시엔 입시 이상으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선생님들도 대학을 잘 가보자고 했지, 그 이후의 답은 전적으로 내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익숙한 전쟁터로 복귀한 것 같아요. 서열이 확실한 곳으로, 가장 답답했던 곳으로 다시 갔어요.

오후 10시에 벨이 울리자 유자는 짐을 챙기며 건물을 나선다. 강남역에서 신논

2) 2017년도 6월 국어 모의고사 28-33번 문제의 지문

현역까지 걸어서 11분, 뛰어서 7분인데 10시에는 강남 거리에 사람들이 특히나 많은 듯 느껴진다. 책가방은 무겁지 않지만 유자의 어깨는 너무도 무겁다. 마지막에 틀린 수학 30번이 마음에 걸린다. 96점을 받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온갖 경우의 수가 떠오른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우울한 마음은 커커이 쌓인다.

유자 (2017) (눈물을 꼭 누른 채 고개를 떨군다) 맞는 선택을 한 걸까. 이번에 시험 잘 못 보면 어쩌지. 나는 참 못났다.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유자 (현재) 어우, 남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 소중한 자아를 놓친 시기였어요. 1등, 탑1이 되지 않으면 제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 줄 알았나봐요.

케르베로스 많이들 그런 상태로 오기는 해요. 수능을 보고 났더니 어떠셨나요?

유자 (현재) 수능 시험장에서 마지막 교시가 끝났을 때 저는 진짜 만점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채점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처참하게 망했어요. 눈이 비처럼 내리는데 영영 울면서 한강공원에서 멍때리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구나. 그때 다짐했어요. 앞으로의 대학 생활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그 일환으로 혼자 많은 여행을 했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 모르겠는 빈칸들을 하나씩 채우려고 스스로와 데이트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갔어요.

케르베로스 와... 여행 방이 그토록 많았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제 최고로 행복했던 여행을 보여주실래요?

S#. 9 다섯 번째 방

2018년도로 기록된 여행의 문은 12개였다. 국내외를 오가면서 열심히 즐긴 기록이 가득했다. 유자가 이 방문을 지나쳐 도착한 곳은 <태국, 2019.07.> 방이었다. 유자가 문을 열자 습기 가득한 치앙마이 요가원이 등장한다. 각양각색 옷차림의 사람들이 아침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며 매트에 발을 딛고 있는 모습이다.

요가 선생님 Now let your chest drop. Three, two, and... one. Namaste. I wish you all a peaceful day.

유자 (2019) 나마스떼. 후. 너무 시원하다.

길거리로 나서면서 길거리 음식인 망고밥을 구매한다.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숙소로 도착해서 유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책 한 권과 함께 풀장으로 향한다. 독서와 낮잠을 반복하다가 혼자 풍덩 물에 빠지고 또다시 벌렁 드러눕는다. 차차 어두워지자 근처 한식당으로 향해 된장찌개를 먹는다. 근처 재즈바에 가서 그날의 라이브 재즈 라인업을 살펴보고 앉는다.

케르베로스 와, 완벽한 휴가를 보내셨네요?

유자 (현재) 그쵸. 무려 한 달이나! 몇 차례의 여행을 거쳤더니 제가 원하는 여행이 어떤 모습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학기를 마치고 딱 쉬러 간 태국에서 나름의 휴식과 도전을 모두 할 수 있었죠. 나를 일상적으로 정의하는 꼬리표들이 사라진 그 낯선 땅에서 자유가 뭔지 드디어 느끼게 됐어요.

케르베로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여행이라고 해주셨군요.

유자 (현재) 그럼요! 장 그르니에의 <섬>이라는 수필집의 이 부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수없이 꿈꾸어 보았다. (중략) 나는 오로지 나만의 삶을 갖는다는 즐거움을 위하여 별것 아닌 행동들을 숨기기도 한다. 비밀스러운 삶. 고독한 삶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삶 말이다.”³⁾ 싱어송라이터 권나무씨의 <여행>이라는 곡에서 처음 들었는데, 어느 날 <섬>을 읽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케르베로스 서울에서의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행에서 채워졌군요.

유자 (현재) 바로 그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가볼까요?

S#. 10 여섯 번째 방

산등성이에 딱하니 학교가 놓여있다. 새벽 차가운 공기와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고요하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새벽 6시 30분, 어제도 입은 것 같은 후드티를 걸치고 유자가 터벅터벅 걸어온다. 졸음을 얼굴에서 닦아내며, 한 손에는 노트북과 다른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비탈길을 내려온다. 유자는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의 고요한 학교를 정말 좋아했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쭉 정리하고 급식실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다. 아침 혼밥은 고3 시절에 시작한 규칙인데, 실은 정말 공부 잘하는 다른 친구가 하길래 따라 해본 것이라고 한다.

3) 장 그르니에, <섬> 77-78 페이지



유자 (현재) 와 너무 오랜만이다. 난 여기만 생각하면 진짜 전생 같아요. 뭘 해도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청소년기에 이런 곳에서 친구들이랑 24시간 붙어있었던 것은 참... 많이도 울고불고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어느 날에는 너무 외롭고 혼자인 것 같았다가도, 어느 날에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사람처럼 당당해지고. 저는 학교생활 이야기만으로도 책 한 권 나올 것 같아요.

케르베로스 (늦어지는 퇴근 시간을 상상하며 고개를 젓는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바쁘고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도 많았구요?

유자 (현재) 그쵸. 진짜 뻥센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재미있게 숨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수다 떨고 오목 두고 선생님들 성대모사 대회 열고 우리끼리. (싱긋 웃으며) 그런 친구들과 또 같이 토론하거나 대회에 나가면 열심히 머리 싸매고 준비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기억도 너무 소중한요.

케르베로스 더 어린 시절에는 어떠셨나요?

고등학교 시절의 유자가 빠르게 뒤로 감기를 통해 어려워진다. 키와 안경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덜 피곤해보이는 중학생 유자가 등장한다. 신발이 모조리 잠기도록 눈이 펄펄 오는 날, 야외 계단에서 친구들과 경사로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유자 (2012) 야아 애들아! 여기 다 됐다. 얼른 상자 우리 같이 가져오자.

케르베로스 (휘둥그레해지며) 뭐 하고 놀고 계신 건가요?

급식실 뒤편에서 박스 3개를 친구들과 가지고 오는 유자, 그걸 그대로 깔고 앉아서 계단을 내려온다. 엉덩이가 퐁퐁 튀어 오를 때마다 신난 목소리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유자의 친구들도 한 명씩 상자를 깔고 내려온다. 꽤 높은 곳에서부터 겁도 없이 내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해맑고 짜릿함으로 가득하다.

케르베로스 산속에서 학교를 다니셔서 친구들이랑 하교하며 떡볶이는 못 드셨겠지만... 또 이런 재미가 있으셨군요!

유자 (현재) 아, 그럼요. 물론 부모님 없이 어린 시절부터 있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엄마아빠도 아마 마음 아파하셨던 날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유자 (2012) (그렇그렇 눈물이 맺힌 채로) “어 엄마... 나 너무 아파. 영. 약은 먹었어. 아니 목이랑 머리가 너무 아파... 일단 사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누워있기는 한데... (참아온 눈물이 터진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아이고 우리 유자... 아파서 서러워서 어쩔담.

엄마가 내일 갈게. 응? 조금만, 오늘만 혼자 꼭 쉬자 알겠지?”

유자 (현재) 친구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죠. 청소년기인데 심지어 분리되는 공간도 딱히 없다?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이 이곳에 있었어요. 뭐 6년째 되니 해탈했죠. 여하튼 성장도, 재미도, 아픔도 모두 이곳이었습시다.

유자의 어린 연애부터, 친구들과 싸우는 모습, 선생님을 졸라서 수업을 쉬고 밖에서 피구하는 모습, 12시 땡 되자마자 급식실로 달려가는 모습 등 각각각색 나이의 유자 모습이 한 공간 안에 보인다. 시험을 못 보고 울면서 뛰어나가는 모습도, 토론 대회에서 1등을 해서 한껏 기뻐하는 모습도, 친구들과 몰래 라면을 먹는 모습까지 하나둘 지나간다.

유자 (현재) 사실 희미해요. 지금과는 너무 다른 나, 그리고 서울과 너무 다른 환경 때문인지, 사실은 기억이 정말 잘 안 나요. 그냥 사소한 것들, 같이 성시경 노래를 들으면서 걷던 그 찰나 그리고 밤하늘 별이 정말 잘 보였던 한순간. 이런 감각만 살아있어요.

케르베로스 그림거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아닌가요?

유자 (현재) 저는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기만 해도 칭찬받던 시기는 맞지만, 그래도 선택권이 있다고 느끼는 어른 생활이 제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또 아 그리고 보니 참 저때도, 지금도 만족하며 살았네요.

S#. 11 일곱 번째 방

어느 어린 날의 기억을 더듬어간다. 이 방문의 높이는 상당히 낮다. 마치 어린이가 자주 들락거리는 문 같다. 방문에는 <집, 2010.>이라고만 쓰여있다. 퇴근이 코앞인 케르베로스는 발로 툭툭 들어가기로 망설이는 유자의 무릎을 툭툭 코로 건드린다. 그들은 문 안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

침대 위에는 어린 유자가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 아빠는 옆에서 걱정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엄마는 계속해서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유자가 천천히 눈을 뜨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진다.

엄마 아이고, 유자야! 괜찮니. (아빠를 바라보며) 정말 이 인간 때문에 못 살아 정말. 유자야 머리 아파?

아빠 아니 평소에 자전거 뒤에 서서 잘만 탔는데 오늘… (머뭇거리며) 유자가 힘이 없었나 보네.

유자 (2010) 응… 나 무슨 일이야? 머리 안 아파. 그냥 조금만 아파.

엄마 그래도 혹이 났어. (유자의 눈 위로 손을 덮으며) 눈 감고 쉬고 있어 유자. (아빠에게) 당신, 다시 한번만 더 유자 위험하게 자전거 뒤에 세워서 태워봐.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유자는 엄마아빠의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다시 잠에 든다. 아빠와 항상 동네 한 바퀴 함께 도는 시간에는 스릴을 위해 아빠의 어깨를 잡고 자전거 뒷쪽 철망에 서서 신나게 놀았는데, 오늘의 운수가 별로였나보다 싶다. 엄마의 손이 따뜻하다고 생각한다.

유자 (현재) 짧은 기억이죠? 근데 종종 생각나요. 아빠랑 같이 바람을 가로지르던 그 날 그리고 넘어진 뒤 엄마에게 안겨 따뜻하게 잤던 것. 제 어릴 적 우리 가족의 모습은 지금 너무 멀게만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건가…?

케르베로스 (방긋 웃으며) 그럼, 이 기억에서도 이제 나가볼까요.

둘은 함께 복도로 나선다.

S#. 12 죽음을 마주보다

이제 유자와 케르베로스 앞에 놓인 문은 단 한 개다. 새하얗고 단출한 문 앞에 선 유자는 이 문에만 문패가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 자신의 시간이 왔음을 느낀다.

유자 (침묵을 깨며) 프리다 칼로는 “I hope exit is joyful and I hope never to come back.”이라고 했다네요. 삶의 고통을 놓아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케르베로스 저랑 같이 이 방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유자 희노애락 모두가 소중한 감정들이구나 싶네요. 고통도 인생의 일부분이고, 기억의 한 칸이네요. 분명 부담스러운 마음에 모래알이 되고 싶고, 먼지처럼 가벼워져서 이곳을 뜨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다시 보니 그 또한 제 소중한 기억이네요.

케르베로스 (침묵을 지키며) … 맞습니다.

유자 아직은 조금 아쉽나 봐요. 정말 아직은 더 궁금해요. 조금 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조금 덜 무리하고. 내 욕심에 이기기도 지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내 기준이 너무 높아 그 기준에 맞게 살지는 못해도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내 몫이었네요. 그리고 틈틈이 더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누는 것 또한 내 몫이네요.

케르베로스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몫인 것들이 있죠.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

유자 (생각에 잠기며) 나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아껴줄걸. (가벼운 미소를 띄고 고개를 들며) 하지만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나겠죠. 고통을 견디고 소화해야 즐거움이 오던 삶. 끝없이 쫓기는 것 같던 삶에 지쳤기도 해요. 저 인생도 이제 보내줄 때가 온 걸까요?

케르베로스 (슬쩍 웃으면서) 네. 맞아요. 지금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 저와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유자 (꾸벅 인사하며) 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웠어요. (망설이다가 3개의 머리 중 하나를 꼭 껴안으며) 당신은 정말 프로인 것 같아요.

케르베로스 (당황하다가 이내 머리를 유자의 팔에 기대며)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유자는 망설임 없이 새하얀 문의 손잡이를 잡는다.

S#. 13 마지막 문

유자가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곧장 하얀 복도였다. 그 복도의 끝에는 허리 정도 높이의 어떤 협탁과 브라운관 티비가 놓여있다. 어릴 적 하던 팩맨 게임이 화면에 띄워져 있고, 그 앞의 게임기가 있다. 화면에는 한 게임이 막 끝난 듯, 두 개의 버튼이 있다. 익숙한 80년대 게임음악이 흘러나오고, 음악 한 곡 반복 재생할 때 누를 것 같은 <RETRY> 버튼과 그 옆에 좌측을 가리키는 화살표 버튼의 <EXIT>이 화면에 떠 있다.

유자 (공시령거리며) 에이 뭐야. 너무 클리셰하다. 저 액션을 누르면 아예 다시 안 태어나는 건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며) 하지만 틀린 선택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 다시 살아가도 나는 인생을 가득하게 살아나가겠지. 다시 살지 않는다고 해도 꽤나 괜찮을 것 같아. 응? 나는 정말 괜찮네? (장기하의 신곡



<부럽지가 않아> 멜로디를 붙여 흥얼거리며) 난 괜찮아~ 나는 정말로 상관이 없
어~ 흠~

유자의 손이 게임기를 향하면서 게임 화면의 모서리가 줄어들며 동그란 모양으
로 좁혀진다.

영화가 막을 내린다. Fade out.

- The END-

어른은... 외로운 거야~

네오

“어른이 뭐예요?”

당신은 어른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질문한 사람은 ‘20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식상한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20세가 넘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어른입니까?’라는 질문에 자신감 넘치게 ‘나는 어른이다’라 하진 못할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른인가?’라 생각해보면, ‘아직 어른이 아니다.’라고 답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알바몬에서 조사한 설문에서도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난 아직 어른이 아니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⁴⁾ 그렇다면 누가 어른인가?

고등학생 때까지의 나는 친구가 정말 많았다. 기숙사에서 살았기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은 방에 절친한 친구가 있었고, 방문을 나서면 친구들이 내 눈에 가득 찼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고, 목소리가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나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친구들이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야기를 듣고 진중하게 함께 고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나는 내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던 사람이었다. 선생님들은 나보고 성숙하다고 했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평소에 남들보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나이는 좀 부족하지만, 어른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어른이 아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았기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어른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은 대학교 1학년 때였다. 그 시절, 나는 아직 우리 과 동기들과 친하지 않았다. 고등학생 때 친했던 친구들도 다 나와는 다른 학교를 갔고, 같은 학교를 왔어도, 타과였기에 만나기가 어려웠다. 동아리에서도 이렇다 할 만큼 친한 친구들이 생기지도 않았었다. 그렇다. 대학교 1학년 때의 나는 친구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였고, 수업을 듣고 나면, 다시 혼자였다. 너무 외로웠다.

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51610320640981&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검색일 2022.04.16)



자취방에 들어오면, 느껴지는 삭막하고 조용한 공기가 싫어서 모든 할 일을 밖에서 하고 들어왔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있는 할 일, 없는 할 일 다 끌어모아서 밖에 했지만, 그럼에도 할 것을 다 하고 집에 들어가면 8시였다. 빨래를 하고, 옷을 정리하고, 씻고 침대에 누우면 9시였다. 남들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자신의 귀를 채울 때, 나는 내 이불이 쓸리는 소리가 귀를 채웠다. 한 시간쯤 뒤적이다 잠에 들면, 오전에 일정이 하나도 없어도 7시면 눈이 떠졌고, 새소리가 나를 반겼다. 전이 없으면 반갑게 느껴졌을 새 소리가 슬프게 느껴졌다.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과거에 기숙사에 살던 것이 정말 안 외로운 환경이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살고 있었구나. 다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자고, 혼자 공부를 하는구나. 대학생은 외로운 것이었구나. 어른은 외로운 것이었구나. 나는 내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미래를 잘 챙긴다고, 인간관계를 잘 챙긴다고 어른인 것은 아니었구나

지금의 나는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도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할 줄 알고, 밥을 혼자 먹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다. 수업을 들을 때, 친구 없이 독강을 하더라도 수업내용을 잘 챙길 수 있으며, 조별 과제를 해야 할 때면,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 줄도 안다. 물론, 지금의 나는 대학에서의 시간이 쌓인 만큼 혼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혼자가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씩씩하게 살아갈 줄 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때의 나는 너무나도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했다. 1학년 때의 나에게 수고했다고 하고 싶다. 그 시절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른인가? 사실 아직도 자신감 넘치게 '나는 어른이다.'라 하진 못한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의 나보다는 '조금 더' 어른이 된 것 같다. 누가 나에게 '어른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이 외로웠던 순간을 눈을 감고 잠시 회상하고는, 씨익 웃으며 가볍게 '어른은... 외로운 거야~' 라며 장난식으로 한 마디 할 수 있는 조금 더 어른이다.

내 안의 모든 긍정과 부정을 담아

리스너Listner

언제 어디선가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할 생각에 먼저 신부터 나는 것을 보면 나는 상당히 긍정적인 편인 것 같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즘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을 소개하는 것에 별 거리낌이 없다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건강한 날들을 보내고, 또 가끔은 가만히 있어도 땅으로 푹푹 꺼지는 듯 건강하지 않은 날들을 보내면서 나를 채워가고 있다. 2022년의 봄, 현재까지 만들어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나는 취향이 분명한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건 영화, 음악, 글이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이 세 가지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장르는 딱히 편식하지 않는다. 드라마, 로맨스부터 범죄, 스릴러, SF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화를 접하고 있고, 거의 모든 종류의 음악을 즐겨 들으며, 글은 이제 더 이상 인문에만 치우치지 않으려고 과학이나 정치/시사 글도 찾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건 레트로 풍이라, 살아본 적도 없는 나라의 자유롭던 시대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들을 사랑하고, 익살맞은 표정으로 시니컬한 가사를 내뱉는 90년대의 브릿팝을 특히 좋아한다. 그래서 알바비를 쪼개어 턴테이블과 카세트 플레이어를 장만했고, LP와 카세트테이프를 모으며 행복해한다. 내 취향이란, 쌓이는 법은 있어도 원체 바뀌는 법이 없어서 이 글을 먼 훗날 읽게 된다 해도 분명 내가 좋아했던 걸 싫어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내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유형이 편협한 사고로 자신만의 우물 안 개구리로 사는 사람이니만큼, 나는 번두리에 숨겨진 다양한 이들의 취향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두 번째로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오죽하면 사주에서도 자아가 매우 비대하다고 나온다. 나는 이 점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가능한 한 건강한 쪽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주로 사용한 수법은 일부러 친한 주변인들에게 마음먹은 목표를 알려서, 내가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느낄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게 되면 주변 사람들



에게 많이 알린다. 비록 내가 꾸 꿈은 중학교 때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르며, 대학교 때 다르지만, 그때마다 모두가 진지하게 들어준다. 아무래도 내가 매 꿈을 당장이라도 뛰어들 것처럼 진지하게 꺾서 그런 것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은 영화를 업으로 삼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만들고, 또 기어코 돈 버는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쓸데없는 승부욕이 발현된 결과다. 결국 내 꿈과 의지가 어디에 가 닿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준비는 시작됐고, '나 같은 게 무슨'이라며 발을 빼버리기엔 이미 너무 많은 친구들에게 말해 놓았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해야 한다. 중간에 그만두는 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물론 하루종일 고생하고 난 뒤 나를 위로하기 위해 쓰는 일기장엔 그만둬도 괜찮다. 그게 내 의지에 의한 거라면 뭐든 괜찮다 적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다. 내가 조금 더 이 악물고 버텨서 내 비대한 자존심을 충족할 만한 성과를 냈음 좋겠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높은 쿿대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내 모습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 남들은 다 쉽게 해내는 것 같은 일이 내게는 버거울 때, 남들 다 누리는 것 같은 일이 내게는 기회조차 없는 것 같을 때.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면 언제나 열등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때 항상 솔직해지기로 한다. 내가 느끼는 열등감을 인정하고 더 가열차게 달리는 데에 이를 연료로 쓴다. 솔직해지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연료로 쓸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만다. 그런 어리석음은 이제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게 바로 나아간다는 것이겠지.

또 어떤 모습의 나를 소개해야 할까 오랜 시간 고민해봤다. 미래의 내가 보고 싶어 할 현재 모습을 적고 싶은데, 그때의 나도 과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악의 없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궁금해할까?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가려고 질문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을까? 미래의 나를 향한 두려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나는 항상 다짐한다. '어린 왕자'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어른들처럼 되지 말자고. 내 안의 끈대에게 잡아 먹히지 말자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줄 줄 알고, 그들에게 내 답보다 질문을 더 던지고, 악의 없이, 계산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을 잃지 말자고. 내가 이런 다짐들을 지켜낸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무언가 거슬리거나 창피한 구석을 써 놓았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지 싶다. 어떤 모습이면 또 어떻겠는가. 미래의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알아서, 나는 지금 여기서 그 다음을 응원할 뿐이다.

삶의 이유가 어딴어! 그냥 사는 거지!

보이후드

12월 6일, 그날은 고려대학교 논술 합격자가 발표되는 날이었다. 6개의 수시전형 모두 논술에 집어넣었는데, 논술 전형에서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합격, 합격, 합격이었다. 고려대학교 결과만이 남았는데, 집에서 떨리는 손으로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였을 때 보이는 글자는 또다시 합격이었다. 나는 스스로 감정 기복이 적고 차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때는 기쁨을 주체할 줄을 모르고 부모님에게 방방 뛰어들고 말았다. 그때는 내 인생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직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쉽다고 생각했다.

나는 고려대에서 2시간 걸리는 곳에 살고 있어 통학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리고 기숙사는 입학원서를 접수할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인데, 나는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면서도 붙을 거라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았다. 남은 건 자취뿐인데, 어머니와 통학과 자취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펼치다가 결국 입학 전 주말이 되어서야 급하게 자취방을 구해 입주했다. 자취방은 참 구렸다. 방은 좁고, 더럽고, 큰 벌레들과 자주 인사도 했다. 또한 혼자 사는 자취방은 참 외롭더라. 평소 본가에선 아빠와는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엄마는 잔소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고독한 상황이었다.

사실 가장 문제인 것은 내가 대학교에 잘 적응을 못 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1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사는 시간 빼고 같이 지내다 보면, 마음 맞고 대화할 친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소심한 성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교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곳이었다. OT 같은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와 계속해서 만나며 대화를 이어 나간다는 것은 나에게 꽤 심력을 쓰는 일이었다.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찾기는 힘들었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보기도 했고, 뽀션에게 식사를 요청해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근데 어디에도 적응하기 힘들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 같았다. 나는 무소속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귀찮아졌다. 재미없는 교양 수업도, 인간관계도. 그래서



그냥 자취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다. 주말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척 본가에 가서 지냈지만, 평일엔 수업도 나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가만히 있었다. 컴퓨터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누워서 웹툰을 봤다. 며칠간 연락도 없이 틀어박혀 있으니 자취방에 누군가 문을 두들겼다. 동기들이었다. 나를 걱정하며 문을 두들기는 것이었겠지만, 나는 그들이 국경선을 넘으려는 적군처럼 느껴져 무서웠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며 없는 척했다. 2번을 오고 나서 그들은 다시 오지 않았다. 동기라고 한번이 아닌 2번은 찾아와준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 걸음에 대답하지 못한 것에 미안하다. 식탐이 많은 내가 이 기간엔 하루에 한 번 생활을 영위할 정도로만 먹었다. 그때의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력감이었다.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보니 생각할 시간도 많아졌다. 자살을 고려해본 적은 없지만, 죽음이 두렵다는 유아기적 공포를 넘어서서 진지하게 삶의 이유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결국 어머니한테도 이 생활을 들키고, 휴학하기로 하고 본가에서 쉬기로 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과잠을 갖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렇다. 과잠이 나왔을 때는 이미 나는 자취방에 틀어박혀서 과잠을 받을 수 없었다. 나는 과잠이 있는 과방에 가는 것이 두려워 그 과잠이 뭐가 중요하냐고 외쳤지만, 어머니에게는 돈을 지불해 놓고 과잠을 들고 오지 않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방학 기간 때 2시간 지하철을 타고 과방에 들어갔다. 그곳엔 과대표가 있었다. 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겠지? 어쨌든 과대에게 내 과잠이 있냐고 물었다. 내 과잠은 이미 동기들의 공공재가 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더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집에서 평평 울었다. 그깟 과잠 꼭 찾아야 한다고 한 엄마가 미웠고, 갖는데 못 찾은 것도 서러웠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거 아닌 일인데, 사람은 쪼잔한 일에 더 눈물이 많이 나더라.

휴학하고 집에서 백수처럼 지냈다. 재밌게 휴식을 만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때웠다. 기존의 고등학교 친구와도 연락을 끊고 지냈다. 계속 시간을 때우던 중, 내가 보기에 내가 좀 한심해 일을 해봐야겠다 싶어 편의점 알바를 구했다. 야간 편의점 알바는 보통 심심함과의 싸움이다. 심심해서 폰을 뒤적거리는데, 카톡을 보게 되었다. 고등학교 친구가 나 외국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고 최근에 보낸 카톡이 있었다. 내가 뭐 잘난 존재라고 이런 카톡까지 씹나 싶어서 답장했다. 그 이후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친구 자취방에 가서 술도 먹었다. 대학교에서 마신 막걸리, 소주, 맥주 다 드럽게 맛이 없고 쓰기만 하던데, 친구가 타준 소맥은 술술 들어가고 맛있더라. 술만 마시면 아토피가 심해져서 술을 못 먹는데, 그때가 내 마지막 술이자, 가장 맛있는 술이었다.

친구와도 다시 만나고, 빨리 군대나 갔다 와야겠다 싶어서 군대에 갔다. 흔히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지요원으로 2년간 복무했다. 평화의 집이라는 지적장애인 시설에 배치받았다. 이런 장애인 시설은 흔히 헬무지(hell + 근무지)라 하여 사회복지요원들이 기피하는 곳이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다. 물론 식당에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을 만들고, 장애인분들을 씻겨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봉사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은근히 뿌듯하기도 했고, 딱센 일들을 하는 것이 잡념을 없애고 하루하루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를 추종하며 종교를 극히 혐오하던 사람 중 한 명인데, 평화의 집은 기독교 기반 시설이었다. 평일에 9시부터 6시까지 장애인을 돌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주말을 포함해 하루 종일 장애인을 돌보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웠다. 나는 억만금을 받고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종교의 힘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또한 평화의 집 운영자분들은 종교에 귀의한 탓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삶에 확신이 있어 보였다. 나는 강력한 무신론자지만 후에 나이를 먹게 되면 종교에 귀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분들을 보며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알게 되고, 내가 부정했던 것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인정이 늘어났고 성격이 유해졌다. 항상 부정적으로 사건을 보던 놈인데, 긍정적으로 사건을 보려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같이 나이를 먹은 어른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치열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젊은 열정은 사라졌다. 좋은 변화인지는 알 순 없지만, 아무튼 내 마음은 편해졌다.

복무 중에 형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를 보자고 했다. 마블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히어로물 영화인데 무조건 봐야 한다고 하더라. 나는 무식하게 마블도 몰랐다. 그리고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나온 영화들을 다 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그 이전에 나온 마블 영화 18개를 보고 '인피니티 워'를 보았다. 처음으로 본 3D는 너무 신기했고, 영화는 너무 재밌었다. 그 이후 마블 뿐만이 아닌 여러 영화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다.

또 2년간 복무하고 복학 준비를 하던 중 친구의 권유로 '썸데이 페스티벌'이라는 야외 음악 페스티벌을 가보았다. 너무 덥고 힘들기도 했다. 근데 집의 작은 모니터와 스피커가 아니라 직접 가수를 보며 듣는 음악은 비교도 안 되게 좋았다. 처음 들었던 '아도이'라는 밴드의 음악은 너무 세련되었고, '정준일'의 목소리는 감미로웠다. 새로운 경험이 주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작지만 큰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론 음식은 최대한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으려고 하고, 음악도 항상

듣던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려 한다. 물론 그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집돌이의 작은 반경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복학하고 나선 1학년 1학기 때 탈주해서 생겨난 F학점 들을 만회하기 위해, 많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했다. 복학 첫 학기인 1학년 2학기 때, 지금은 은퇴해서 들을 수 없지만 명강의라고 소문났던 나흥식 교수님의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리포트 과제가 있는데 사실 평가 점수 100점 중 10점만을 차지하고, 일정 수준만 갖추면 무조건 10점을 주는 형식이라 열심히 안 해도 되었다. 근데 그때는 오랜만에 복학이라 열정을 갖고 시간을 들여 열심히 적었다. 메일로 제출하였더니 교수님이 “대단하군요. 잘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메일을 일요일에 보내 주셨다. 의례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칭찬이 기분이 너무 좋았다. 생각해보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언제인가. 그리고 그다음 월요일 수업 날 생각보다 리포트를 일찍 작성해서 보내준 학생이 있는데, 잘 작성했다고 다시금 칭찬해 주셨다.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해서 뇌가 굳었을까 봐 걱정했는데 리포트는 칭찬받았고, 다른 과목을 포함한 최종 성적도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학기에 특정 조건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전액 장학금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었고, 혼자 사는 삶이 조금은 더 재밌을 수 있는 취미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무료함이나 큰 고통 없이 나를 삶을 꾸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과잠을 한 번도 입지 못했고,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으며, 소위 말하는 뜨거운 청춘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 많은 사람이 대학교에서의 즐거운 생활을 얘기할 때, 나는 어색하게 가만히 있어야겠지. 후회 많은 삶이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냥 살아갈 것이다. 자취방에서 혼자 누워서 삶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 없더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 삶의 이유를 찾게 되고, 살만하면 삶의 이유를 찾지 않게 되더라. 힘들 땐 삶의 이유를 찾아보겠지. 하지만 지금은 살만하다. 굳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다면 지금은 가수 ‘이승열’의 콘서트를 가기 위해, 래퍼 ‘카니예 웨스트’의 신보를 듣기 위해, 마블 영화 시리즈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다음 영화 작품을 보기 위해, 아마존에서 방영할 ‘반지의 제왕’ 드라마를 보기 위해, ‘아다치 미츠루’의 신작 만화 완결을 보기 위해, 카카오 페이지 웹툰 ‘프로야구 생존기’를 보기 위해, 게임 ‘레드 데드 리DEM션2’의 후속작을 하기 위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e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유튜버 '침착맨'의 새 영상을 보기 위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들의 방송을 보기 위해, 화정 체육관에서 하는 소프트볼 수업을 듣기 위해 나는 산다.

나도 변하고 싶다

빛나리

“우리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국가 이익이 있을 뿐.”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헨리 키신저의 유명한 어록이다. 나는 현재 친한 친구가 6명 정도 있지만, 그들과 언젠가는 멀어질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그들과의 사이가 나빠서도, 공통 관심 분야가 없어서도 아니고, 서로 존중하지 않아서도 더더욱 아니다. 내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이 외국으로 전학을 가면서 멀어질까 걱정했는데, SNS를 통해 꾸준히 연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연락이 점점 끊기게 되었고, 그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기 시작했다. 얼핏 보면 그냥 몸도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서는 평생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 매몰차게 군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많이 내성적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떠나간다는 생각 속에 모든 것을 꼭 혼자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친한 친구들도 있고, 대인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다 자부하지만, 그들 역시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부정적이면서 감정이 없는 성격이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생활에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어떤 일에 있어서든 “완벽”을 되도록 추구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나를 비관적이라며 표현했지만,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이 극도로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고 싶다. 나는 어떤 일에서도 항상 최악을 고려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실패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한 번은 성적 비중도 크지 않은 조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교수님께서도 가볍게 임하면 된다 하셨고, 발표한 것에 의의를 둔다 하셨다. 하지만 나는 발표 후 질의응답 때 나올 법한 질문에 대한 답안, 그리고 그 답안에 대한 추가 설명까지 준비하면서 조원들을 무척 피곤하게 했다. 이는 단지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내 마음속 깊숙이 나에게 대한 분노로 차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까? 일하는 데 있어 이런 강박관념은 정말 나를 피곤하게 하지만, 그만큼 나는 잘 하고 싶다. 번외로 나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남몰래 부러워하고 있다. 처음에



는 도대체 무슨 터무니없는 근거로 항상 “잘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등의 자기최면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보면 그런 밝은 에너지 덕분에 힘든 상황을 덜 고통스럽게 버텨내는 것 같다. 그들이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런 밝은 에너지가 부럽기만 하다.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감정도 없고 가끔 메마른 사람 같다 얘기하신다.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게 되었고, 감정을 드러내면 나의 치부를 온 세상에 공개하는 것 같아 숨기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슬픈 영화를 보거나 화나는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나는 별생각 없는 표정으로 감정을 다시금 삭힌다. 이렇기에 친구들도 나를 감정 없는 로봇이라 장난삼아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누구보다 감성적이다. 얼마 전에 러시아 공습으로 방공호에 갇힌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부끄럽지만 나는 “김메주와 고양이”, “무지막지한 막무가네”, “몽치의 개팔상팔” 등의 동물 유튜브들을 보면서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내놓는다는 게 아직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부모님도 많이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조차 표현한 적이 손으로 꼽힌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나는 부정적이고 매사에 감정이 없는 우울한 사람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모습을 철저히 지키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 대학 와서도 타인에 대한 삶과 업적 위주로 공부했지, 내 삶과 자신에 대한 고찰은 처음 해보는 것 같다. 나는 어둡고 비관적이지만,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에게 거리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격려와 칭찬을, 남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필명 역시 이런 이유 때문에 “빛나리”라 정했다.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의 사고방식이나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는데, 나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새맨

25년이라는 지난 나의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니, 나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동력에 크게 의존해왔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사랑이라 함은 주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인, 나의 경우 이성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내가 살아 있다고 느꼈던, 즉 다시 말해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나라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여쭙면 공허할지도 모르는 이 삼라만상 가운데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 명의 인간으로 태어나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던 순간들은 모두 내가 강렬한 사랑에 빠져 있던 순간들이었다. 이 말은 즉, 사랑의 대상이 부재하게 되는 순간은 동시에 삶에 있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살아야 할 이유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일 것이며, 곧 나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17살의 나는 처음으로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두 학년이 높았던 선배로, 평소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기며, 작사와 작곡을 좋아하던,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었다. 장시간 그녀를 그리워하고 짝사랑하였던 나는 오랜 고민 끝에 그녀가 졸업하기 한 주 전에 나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내 마음을 숨긴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내 마음을 받아주었고 약 한 주간의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후, 그녀는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고, 나는 계속 해외의 고등학교에 남아 입시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비록 한 주라는 짧은 기간밖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녀와 나는 시차와 거리의 제약을 넘어 계속 사랑을 하기로 다짐을 하였고, 우리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사랑이 부여하는 제약 속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나는 사랑이 주는 달콤함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슬픔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함을 깨닫게 되었고 러셀이 말하였듯 사랑이 주는 “기쁨의 몇 시간을 위해서라면 남은 여생을 모두 바쳐도 좋(고)...성인들과 시인들이 그려온 천국의 모습이 사랑의 결합 속에 있음” 몸소 느

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한한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이며,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고,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게 되었다. 만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적어도 당시 그녀와 나의 사랑만큼은. 지금 돌이켜보면 단순히 사랑이 변하고 유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주라는 짧은 시간 밖에 보내지 못했고, 장거리 연애를 지속해야 하기에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던 남들의 예상과 달리, 그녀와 나는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고 서로에게 의존적이었으며 헌신적이었다. 사랑의 위대함이 빛나는 시간들이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서울의 고려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그녀와 내가 오랫동안 고대해왔듯 드디어 함께 서울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주위에서는 길고 긴 시간을 기다려온 우리의 사랑이 대단하다 칭송했고 앞으로 함께 할 나날들을 축복해주었다. 나는 그녀와 특별한 사랑을 했다고 믿었으며, 그녀와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같은 공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건만, 잦은 다툼 속에서 그녀와 나의 사랑은 조금씩 식어갔다. 그리고 내가 대학에서의 첫 기말고사를 보게 된 날, 우리는 약 2년 7개월간의 만남을 끝으로 이별하였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사랑에 끝이 난 것이다. 어찌 보면 내가 도망쳤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잦은 다툼 속에서 그녀에 대한 확신을 줄어들었으며, 서서히 소모되는 에너지처럼 그녀에 대한 감정은 줄어들었다.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건만, 그 사랑의 끝에도 결국은 이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이별의 과정은 차갑고 소모적이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사랑도 결국 끝에 이르게 된 이후, 그녀와 내가 보낸 2년 7개월간의 사랑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부정하며 자위했다. 사랑은 영원하기에 변해버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언젠가 또 다른 만남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그때에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오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였을까? 그것도 사랑이었다면 변해버린 사랑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랑도 결국은 유한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던 말인가?



약 4년의 기간이 지난 오늘의 나는 더 이상 그 시절의 사랑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사랑이 유한하며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의미와 가치가 축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랑은 유한하기에, 변할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고 빛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하나의 숫자가 영원하다면 그 가치는 영에 수렴하는 것처럼, 사랑이 영원하다면 지금처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오히려 언젠가 끝날지 모르기에, 언젠가 사랑의 감정이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현재의 감정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하나의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첫 이별 이후, 나는 한동안 사랑을 하지 못하였다. 특별한 사랑을 했다고 믿었지만 변해버린 내 마음 앞에 자책하였고 유한한 나의 감정을 오랫동안 부정해왔다. 하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첫째 사랑도 하나의 감정이며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다. 변해버린 감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결코 관계 속에서 그 누구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다.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사랑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주어진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상대를 만나 사랑을 하며 다시금 사랑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끼며, 사랑이 줄 수 있는 희열에 감탄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대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이 언젠가 변할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 사랑의 감정이 내 마음을 뒤덮는 현재, 나의 감정에 충실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상대를 사랑하겠다고 약속만 할 뿐. 사랑이 끝난 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17세의 나는 사랑이라고 당당히 대답했다. 동일한 질문을 받은 오늘의 나는 여전히 사랑이라고 대답한다. 26년을 살며 나는 아직도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나 사랑만큼 살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는 것 같은지 질문을 받았을 때, 17세의 나는 사랑이라고 당당히 대답했다. 오늘의 나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내가 느끼는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상대와의 만남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다시 믿게 되는 순간은 나의 삶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2022년 5월 썸

예민의 흔적

선선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간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다. 절대자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배불리 먹었다는 내용이였다. 나라면 나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나를 희생해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극히 종교적인 얘기인데도 그냥 '나' 필터를 통해 상황의 당사자를 나로 만들었다. 이렇듯 나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나였다면?' 하곤 상상의 질문을 해댔다. 그만큼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이 모두 if로 돌아와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한순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걱정하는 데에 매초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해 갔고 '나' 필터는 점점 복잡해지는 머릿속과 지친 몸을 남겼다. 걱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날엔 극도로 예민해졌다. 차 경적 같은 큰 소리에 도 쉽게 놀라며 스트레스를 받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강한 반발감에 괴로워했다. 걱정하는 만큼 불안했고 자연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문스러워했다. 삶이라는 불확실성의 집합체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미래에도 답을 내리지 못할 것이기에 조금은 먼 미래에도 하루하루 닳아가는 나뿐이 남을 것 같았다. 자연히 행복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충족하기 매우 어려운 여러 조건이 필요했을 뿐이다. 선선한 바람, 따스한 햇볕, 편안한 장소와 고소 달콤한 커피와 디저트. 사랑으로 풍족한 대화와 그들의 무탈함. 작은 파동과 같은 고요함. 이들을 옮겨 담은, 마음을 찌르는 문학들.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중 작게만 자리할 수 있었다. 순간순간이 주는 아찔한 충격에 매번 틀림없이 흔들려버리는 내게, 잠재적 위험 요소 없이 오직 완벽한 환경이 편안했다. 나의 필수 활동 반경을 뜯어고칠 수 없으니, 이런 경향성은 자연히 대인관계로 옮겨갔다.

내향형인 나는 넓기보다는 폭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곤두서있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만을 친구로 삼았다. 나를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기본적으로 선함을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 사람 군상이 가질 수 있는 여러 특성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또 존중하고 누설하지 않는 것. 행복하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해당하는 조건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나 - 그것을 알면서도 - 나를 지키기 급급해 인정할 수 없었다. 작은 실수들까지도 엄격히 발견하고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믿으며 떨어졌다.

높은 민감성 때문에 모든 외부 자극은 날 굼히게 했으며 외부에 있는 시간이 힘겨울수록 온전한 행복의 실체 - 비록 그것은 실재하지 않지만 - 에 도달하려 애썼다. 힘에 부치는 하루를 보내고 오면 나에게겐 불행함이라는 체감각만 다가왔다. 행복은 아주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에나 존재하거나 어쩌면 행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며.

인내심 있게 지켜봐 준 애인은 이럼에도 저럼에도 곁에서 안정감으로서 함께해주었고, 변하지 않을 것과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도와줬다. ‘나’ 필터가 적용되어 나온 결과물 중 예민하게 받아들여 대처하면 바꿀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실제적 행복의 역치를 낮추는 데에 일조할 것임을 상기해주었다. 한편 사랑해마지않는 한 친구는 행복은 실체가 아니라 불행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한대며, 불행이라는 마이너스가 없다면 불행에 속하지 않으니 행복인 상태가 아니냐는 조곤조곤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런 와닿지 않았던 말들을 하루, 이틀, 한 달, 반년, 일 년을 지나 삼 년째 듣는 지금에야 if는 흐릿해지고 행복은 사실 많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떠올릴 수 있다.

시간의 단편들을 비교했을 때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는, 예민하고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이지만, 어쩐지 행복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다. 통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의 분별 가능성이 높아진 점, 정도의 행복을 따져볼 수 있는 점이 슬한 결점들을 깔끔히 해결해 털털한 내가 되게 하는 건 아니다. 다만 현실적인 걱정만을 하며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지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전공 교수님이 핵심 신념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시며, 건강한 신념이란 ‘어떤 일



이든 잘 해낼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떤 일은 쉽고 어떤 일은 몹시 어렵게 돌아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꽤 잘 해낼 수 있어'에 가깝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마찬가지로 항상 좋은 사람도, 항상 나쁜 사람도 아닌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아상이 건강하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나는 예민하고 불안하지만, 불확실의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고 가끔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나...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할아버지도 SKY는 알지

스트롱미니

“할아버지도 SKY는 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이 텔레비전에서 SKY 관련 뉴스를 보다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시골에서 태어나시고 한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자식들 올바르게 키우시고 부모님 일하실 때, 나까지 키워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 입에서 나온 영어 단어, SKY. 이 짧은 영어 단어 하나를 듣고 나는 꽤나 오랫동안 멍했었다.

이맘때, 나에게 공부를 포기할까 하는 사건이 있었다. 내신은 4등급이어도 국어를 좋아해 곧잘 하던 나에게 서술형 시험지에 쓴 ‘어디에도’를 ‘어디에조’라고 읽으시고 감점하신 국어 선생님. 어렸던 나에겐 공부도 열심히 안 했으면서 서술형에서 1점을 감점당한 것은 공부하기 싫어하던 어린 마음에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다. 이후로, 아버지가 두 번 정도 학교에 출석하셨고, 노느라 돈이 없었던 나는 학교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찾아가 같이 저녁을 먹고 용돈을 받아서 그걸로 또 놓고, 고등학생치고는 꽤나 여유롭고 방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또 돈이 궁해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도 용돈을 주시려나’하고 눈치를 보던 와중에 텔레비전에서 대학교 이야기가 나왔다. 지금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SKY지만 내신이 4등급인 나에겐 너무나 먼 대학교들이었고, 공부에 마침 흥미를 잃던 중이라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학교들이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SKY 알아?”라고 여쭙어보았을 때, 당신은 “할아버지도 SKY는 알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아니야.”라고 답하셨다. 이 별것도 아닌 한마디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머릿속을 당황하게 했고 당시의 나에게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사람 한번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하도록 이끌었다.

당시의 나는 이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뛰어난 독자들에게는 코웃음을 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고등학교라는 좁은 우물 속에서 ‘머리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애’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곤 했었다. 이 말들이 과거의 나에게는 꽤 늦게까지 공부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일함이 되었지만, 막막했던 고2 9월,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나에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되었다.

당시 고등학교는 집에서 꽤나 멀었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

고 있었고 그 왕복 두 시간이 너무 가까웠다. 아빠한테 태블릿을 사달라고 졸라 때로는 공부를 하고 피곤한 날은 그 버스에서 두 시간을 꼬박 채워 자면서 오전 1시~5시를 제외하고 꽤나 공부만 했었다. 이제 다시 적어 놓고 보니 별거 아닌 거 같아 보이는데 그 당시에 나에겐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렇게 1년 3개월이라는 나에겐 너무나 길었던 시간은 연로하신 할아버지께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 당신에겐 너무나 빨랐던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수능이 끝난 이후로는 할아버지를 뵈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댁이 아닌 병원으로 향했다. 편찮으신 와중에서도 병원 갈 때마다 몇만 원씩 쥐어 주시던 할아버지. 하루는 환자복 주머니를 굽어서 모아 주신 1700원. 동전이 싫어서 “나 이제 아르바이트도 한 다고, 돈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며 안 받으려고 하던 나에게 웃으시면서 억지로 내 주머니에 구겨 넣으셨던 1700원. 그게 할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받은 용돈이 될 줄은 몰랐었다.

점점 할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지셨다. 또, 그것과 별개로 나의 시간은 흘러, 대학 입시 결과는 차근차근 발표되었다. 그 중, 내가 가야 하고자 했던 고려대학교는 안정적인 추가합격권이었고 입학처는 2월 3일 오전 9시 추가합격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2월 2일 할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말에 가족들이 다 모였다. 2월 2일 오후 6시, 예정에 없었던 고려대학교 추가합격이 발표되었다. 밥을 먹던 중 병원으로 뛰어 들어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얇은 숨소리만 내쉬던 할아버지가 눈으로 끄덕였다. 내 눈물은 할아버지의 마른 손에서 흘렀고 세월이 너무나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은 내게 너무나 선명하다.

2월 3일 오전 6시, 할아버지께서 떠나셨다.

만약 입시 결과가 제시간에 발표되었다면 할아버지께서는 나에 대한 걱정을 남기고 찻찻하게 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른다. 학교가 조금이라도 일찍 발표해 덕분에 할아버지 가시는 길에 당신의 마음에 얹혔던 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가벼이 가셨을 거라 생각한다. 고작 학교 합격한 것이 사고만 치던 내가 할아버지께 드렸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쁨이었다.

그 시간으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남에 따라 기억 속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흐릿하다. 그래도 가끔씩 나는 당신이 변화시킨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혹은 이렇게 글을 적음으로써 당신과의 기억을 추억한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밍기뉴였던 할아버지.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나의 손자로 태어나요.”

끝없이 싸우는 이

윤목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의 도움 없이 100점을 맞았던 국사 시험. 그것이 내가 미미하게 기억하는 승리의 기억이다. 나는 쏟았던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 보상처럼 다가오는 그 느낌을 좋아했다. 인생에 있어 쉽게 잊히는 사소한 승리의 기억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학창 시절에는 경쟁으로 얼룩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순간들이 있다. 난 중학교 때 남들과 비교하면 성장이 빠른 아이였다. 출석번호 뒷자리를 늘 가지고 있던 나에게, 친구들이 물었다. “너 키 진짜 크다. 나 몇 센티미터만 주면 안 돼?” 의도가 어쨌든 간에 난 그 질문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의 질문이 마치 장난을 핑계로 한 시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대충 얼버무려 넘어간 대답 끝에 남은 감정은 일종의 씁쓸함뿐이었다. “내가 키가 평범했다면 나한테 저런 장난을 쳤을까.” 언젠가는 반에 있던 친구가 나에게 수학 문제를 가져와서 물어보았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 친구가 어디서 틀렸는지까지 알려주고 싶었다. “여기서 계산 실수한 것 같아”. 내 예상과는 달리 낮빛이 어두워진 친구의 표정이 충격적이었다. 한동안은 그때 왜 기분이 나빠 보였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다. 내 생각의 틀에 경쟁은 꽤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앞서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경쟁 자체가 싫지는 않았다. 무언가에 노력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이 좋았고,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경쟁에 몰두하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지는 않았다.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했다. 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학원에 다녔고 그 학원에 있던 친구들과 어울렸다. 친구들과와는 즐거웠지만, 학원은 당시 고등학교 입시 반이었고 우리는 암묵적인 경쟁 상대였다. 여러 학원의 반을 다녔었는데, 어느 반에서는 선생님이 날 이름이 아닌 등수로 불렀다. “야 2등!” 어느 반에서는 친구들끼리 시험 성적으로 장난과 공격 사이의 무언가가 계속되었다. “아~ 이번 시험 쉽던데, 넌 잘 봤냐?” 어느 반에서는 시험 성적을 받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울음을 터트리는 친구를 볼 수 있었다. 나는 당혹스러웠다. 저렇게까지 마음을 다쳐가며 경쟁을 하고 싶을까 궁금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의문을 가졌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떤 답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이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고등학교에서는 경쟁의 난이도가 올라가 성적은 곤두박질쳤다. 밑바닥에서 다른 높은 점수의 친구들을 시기했고 한편으론 부러워했다. 한국에서 좋은 축에 속하는 고등학교여서 양질의 교육과 지원을 받았지만 준비가 안 됐던 나에겐 그저 피곤한 경쟁일 뿐이었다. 그렇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은 딱딱하게 굳어져 갔다. 우연히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며칠간 미국의 동부지역 학교들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난 프린스턴, MIT, 하버드를 구경하며 보낸 며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고풍스러운 분위기들의 건물, MIT 지붕 위에 경찰차가 올라간 적이 있다는 이야기, 잔디에 앉아 자유롭게 공부하던 학생들... 한 번도 본 적 없던 풍경들이 내 눈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 자유로운 분위기에 함께하고 싶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가 내 1번 버킷리스트가 된 순간이었다. 강렬한 목표를 가지니 경쟁의 적당선에 관한 의문들은 잡음처럼 느껴졌다. “난 이 잡음에 신경 쓸 이유도 필요도 없다.” 더 큰 목표는 사소한 것들을 잊게 만든다. 그렇게 난 경쟁의 잡음을 지우기 위해 강렬한 목표들을 만들어냈다. 스타트업 인턴 해보기, 제빵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등 내 개인적인 버킷 리스트들을 만들어나갔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집중하느라 경쟁의 잡음이 덜 들린 줄 알았다. 대학교에 와서야 경쟁의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 다른 틀을 만들어 냈음을 깨달았다. “경쟁은 힘들다. 그러니 삶에서 커다란 꿈을 가져서 경쟁에 덜 집중하자.”가 고등학교까지 경쟁에 대한 내 태도였다. 하지만 언제까지 경쟁을 덮어두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되도록 경쟁을 피하니 성장의 기회는 적어졌고 뒤로 물러나기를 반복했다. 내가 원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었다. 경쟁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수많은 내신과 입학 전형이 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했던 생각들을 지금 되짚어 보아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고등학교 때 경쟁을 피했던 것이 정말 나에게 좋았던 길일까? 아프다는 핑계로 경쟁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 상대와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길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건강한 경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한 채 대학교에 오게 됐다.

대학교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경쟁과 나 자신이 동등해지는 것이었다. 난 경쟁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여전히 남이 잘되는 모습을 시기했고 그걸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러다, 대학생 새내기 OT에 갔고 선배들을 만났다. 선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물어보면 친절히 답해주었다. 참고할만한 자료, 할만한 외부 활동들, 자신은 뭘 잘했고 못 했는지를 알려주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난 그저 후배일 뿐인데? 나아가 사회에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었는데 왜 도와주는 거지? “선배 그때 왜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내가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은 다양했다. “내가 잘되면 나도 잘되니깐” “나중에 같이 일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다. 후에 나는 이 대답을 큰 문제를 풀기 위한 협력의 관계로 해석했다. 협력이라는 관계를 마주보고 나서는, 무언가를 같이 해보려 노력했다. 전공과목의 정리본을 카톡에 뿌린다든지, 동아리 회장을 해본다든지, 창업의 구성원이 되어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해 봤다. 프로젝트에서 형성된 관계는 단순히 경쟁으로만 해석할 수 없었다. 연인, 친구, 동기, 선후배, 동아리 부원, 직장 동료 등등... 난 평생 바라봤던 경쟁이라는 틀을 바꾸어야 했다. 평생을 바라봤던 틀이 바뀔 때 난 벌거벗은 기분이었다. 커뮤니케이션하는 법, 피드백하는 법 등 내용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색한 게 많았다. 참고로 난 지금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쟁을 드디어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중이기도 하다. 대학교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세상에는 협력, 공생처럼 경쟁 외에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방법이 있었다. 경쟁이 관계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순간, 난 경쟁을 드디어 나 자신과 동일선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아직 건강한 경쟁에 관한 생각은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적당한 협력과 경쟁에 약간의 쿨함을 첨가한 것일까 예측하고 있지만, 글을 쓰는 지금도 생각이 자꾸 바뀐다.

중학교 1학년 때, 터덜터덜 집에 오며 내가 그토록 오래 꿈꾸던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길 바란 적이 있다. “나도 언젠가는 경쟁에 의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경쟁에 너무 많은 관계들을 잃어버렸고, 내 마음과 내 자신이 하염없이 멀어졌던 적이 있다. 중학교 때는 문제를 보았고, 고등학교 때는 피했으며, 마침내 대학교 때 문제를 풀 단서를 찾았다. 그렇게 매번 고민했던 아이는 커서 드디어 경쟁을 똑바로 마주한다. 만약 내가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던 때의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고 싶다. “경쟁은 경쟁이야. 그러니 먹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널 키울 게임이니깐” 이제는 경쟁이 내 삶을 헤쳐 놓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경쟁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날 성장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활활 타오르기를 바란다.

어른이 된다는 것

이감

한 살배기 우리 조카는, 자기가 신났을 때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울어 댕다. 자기가 졸릴 때 바로 업어주지 않아도 울어 댕다. 마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양 행동한다. 우리는 모두 한때 이런 어린아이였다. 다만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소중한다는 것을 교육받았기에, 우리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말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인과 의식을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나의 시시콜콜한 감정 변화는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반면, 바로 옆 사람의 문드러지는 속은 표현해주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다. 이러한 한계를 지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교육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른이 되는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나의 경우,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그 계기가 연인의 이별 통보였다. 아름다운 멜로 드라마와 다르게, 나의 이별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동네 치킨집에서 시작됐다. 몇 달 전부터 반복되어 오던 감정싸움이 상대방의 이별 통보로 귀결된 것이었다. 그때의 내 반응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기만 하다. 처음에는 화를 냈고, 다음에는 울었고, 마지막에는 세상 쿨하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날, 걷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학교 열람실로 향했지만, 막상 열람실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대로 곧장 상대방을 찾아가 한 달여의 재고하는 시간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약속받았다.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꽤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반성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은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비난의 화살은 보통 타인을 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자기 반성이라 함은 이 화살을 스스로에게 겨누는 것이다. 만약 이별이라는 상황적 압박이 없었다면, 나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반성의 과정을 거치지지는 않았을 테다. 상대방이 관계를 끊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보았고, 생각의 끝에서 내가 이기적이었음을 깨달았다. 흔한 사랑 노래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해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는



어린아이는 스스로가 이기적이었음을 반성했고, 나만이 중심이었던 세계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로 했다.

약속받은 한 달여의 시간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에 쏟아부었다. 순간의 이벤트보다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나는 이별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었으므로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필요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노래를 연습했고, 굳은살 하나 없는 손가락으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으며,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매일같이 운동했다. 모든 것이 상대방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100을 노력한들 상대방이 10이나 알아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당시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쏟아부은 100이 아닌 상대방이 알아줄지도 모르는 그 10이었다. 그렇게 거진 모든 것을 바쳐 준비한 이벤트는 다행히 성공적이었다. 상대방이 바랐던 것은 사랑받는 것, 즉 타인의 세계 중심에 들어서는 것이 맞았다.

어렸을 때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을 높이 평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공허한 칭송이지 않을까 의심하기도 했다. 마치 모두가 읽지도 않은 고전문학을 찬양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고 나서야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식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그런데 사랑이 이러한 의식의 한계를 허물어 버리고, 이기적인 우리가 타인의 가치를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아이를 어른으로 성장시킨다. 내가 경험한 사랑은 연인관계에서 비롯되었지만, 사랑이 비단 연인관계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애,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어떠한 형태이든지, 타인을 나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을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것이고, 더욱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삶이 흐르는 물이라면 나는

티라미수tiramisu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하는 대로 흐르고 싶어 끊임없이 노를 젓는 사람도 있다. 운명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은 제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굳게 믿는 사람도 있다.

나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원하면, 그리고 노력하면 이뤄내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게 줄곧 나의 신념이었다. ‘인연’에 있어서도 이런 생각은 유효했다. 어떤 이는 인연이 우주적 작용이며 불가항력적 운명이라고 하지만, 나는 인연을 ‘내가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 가장 오래된 기억은 지금까지도 10년이 넘도록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의 첫 만남이다. 쉬는 시간이면 복도를 누비며 이 반 저 반에 모르는 사람이 없던, 종종 도서관에서는 두꺼운 원서를 쉽 없이 읽어 내려가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친구라고 생각했다. 별다른 접점이 없어 아쉬워하던 차에 우연히 같은 반에 배정되었고, 나는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했다. 그렇게 취향을 공유하고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두터운 우정을 쌓아오게 되었다. 대학에 입학해 관심 있는 이성이 생겼을 때도,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고 가까워지기 위해 그를 마주칠 기회들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마음을 쟁취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공부와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운과 운명에 맡기기보다는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고 발버둥 쳐 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무장해 왔다. 이렇게 해서 바라던 성적을 얻고, 꿈꾸던 곳에 합격하고, 목표에 한 발짝씩 가까워지며 나에 대한 신뢰를 쌓아 왔다. 성취의 산물은 언제나 내가 원하면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었다.

이러한 발걸음은 어느덧 나를 ‘완벽주의’에 데려다주었지만, 완벽주의의 다른 이름은 강박이기도 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에서 확신을 얻던 나는 얼마 전 심한 마음고생에 시달렸다. 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는 문제들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지만 나는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때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숨통을

조이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돌이켜 보면, 내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만의 노력과 부단한 통제의 산물은 아니었다. 운 좋게 주어진 기회도, 우연히 마주한 행운도, ‘타이밍’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순간들도 있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내게 쥐여 준 힘과 용기도 나의 큰 부분이 되었다. 나도 모르는 새에 흐르는 대로 두었던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 아주 중요한 나만의 샘을 만들어준 때도 있었다. 단적인 예로 앞서 내 손으로 만들었다고 믿어왔다는 인연도, 안면조차 없던 사이가 서로의 인생에 문 두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좋아서 다가간 사람 또한 나의 향기를 매력적으로 느껴주는 것이 행운이 아닐 리 없다. 온전히 나만의 고군분투로 성취해냈다고 생각한 것들도, 모든 방면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지나며 나는 ‘나 하나만 믿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글과 사진과 음악을 좋아한다. 찰나의 순간이 오래도록 남게 하는 수단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이전에 찍은 사진, 자주 들던 음악, 스쳐 읽었던 글들을 다시 들추어보면 그때의 공기와 감정이 생생히 기억난다. 그렇게 해서 떠오르는 좋은 추억들을 되짚어 보면 그곳에는 실수와 우연이 만들어낸 의외의 장면, 편안한 마음으로 당장의 날씨와 사람과 대화를 만끽하던 여유로운 내 모습이 있다. 내가 진정 바라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여전히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나가고 싶은 뱃사공이지만, 크고 작은 파도에 몸을 맡기고 부유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 아직도 성장해 나가는 중이다.

내가 쓰는 모든 것들은

포레니티

글은 초등학생 때부터 썼다. 딱히 내가 재능이 있거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아니었다. ADHD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고, 항상 숙제나 과제를 빠뜨리기 일쑤였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약을 먹고, 글을 적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약속한 날짜에 늦지 않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적어 두거나, 숙제를 잊지 않고 하기 위해 알림장을 적거나, 중요한 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캘린더에 메모했다. 그렇기에 내게 글쓰기는 귀찮고 아무 의미 없는 글자들의 나열에 불과했다.

약을 먹으면서 심리치료도 병행했기 때문에 ADHD와 관련된 더 큰 문제는 학창 시절에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일이 생겼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동성끼리 수업을 들었던 나에게 이성은 낮은 존재였다. 여자인 친구처럼 그들을 대하면 되겠지라는 오만했던 내가 생각이 문제였다. 둘이서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카톡으로 연락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과에서 내가 여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만약 인간관계만 문제였다면 우울증까지 걸리지 않았을까? 잘못된 소문이 도는 과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휴학하고 시험을 준비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지옥 같은 과에 다시 돌아가야 했다.

과에 다시 돌아온 나는 복학생의 신분이었다. 과 후배들은 나를 어려워하고, 과 선배들은 졸업했고, 과 동기들은 나와 멀어졌기 때문에 학교에 혼자 다니는 게 정말 힘들었다. 졸업 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 내가 힘들어야 하지? 내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한 걸까? 왜 나만 이럴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어졌다.

내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모님이 고향에서 올라오셨다. 부모님의 관리가 내게 많



은 심리적인 안정을 줬다. 타인과 하루에 한마디를 하는 게 손에 꼽을 정도였기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에게 내 태몽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엄마는 무지개라고 대답하셨다. 꿈속에서 보석을 안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환한 빛과 함께 무지개가 엄마 품에 안겼다며,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한지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고 하시며, 과거를 보내라 말씀하셨다.

모든 문제가 남 탓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연민에 빠져 있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어릴 때처럼 다시 글을 적었다. 객관적인 사실만 썼던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내가 힘들었던 순간들과 애매하게 존재하는 생각, 그리고 그 상황에서 느꼈던 내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면서 글쓰기는 나와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심화글쓰기 수업의 마지막 회고록에서는 내가 글을 쓰는 이유를 적어보고 싶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줬다. 무형으로 존재하는 감정과 생각들을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내뿜으면서, 내 마음을 정교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쓰인 활자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꾸밈없이 내 삶을 성찰할 수 있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나왔다.

또한 남기고 싶은 것들을 위해 글을 썼다. 아팠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걸어온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보다 이유 없이 나를 도와줬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 심화 글쓰기 시간에 서로의 글을 공유하며 읽는 것처럼, 감정적인 말만 내뿜지 않고 정리된 글로 타인에게 내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타인의 글을 읽으며 내 삶에서 느껴 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

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다 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떠올랐다. 우당교양관에서 고려대학교에 오기 위해 면접을 본 날이다. 알파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기에 다른 연도와 다르게 면접 유형이 바뀌었다.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을 준비했고 그 답을 교수님 앞에서 말씀드렸다. 교수님들의 끄덕임과 눈빛을 통

해 이걸 무조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가 문제였다. 만약 어떤 외국인이 택시 기사에 의해 요금을 바가지로 당해 다투는 중일 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이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때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었다. 오랜 정적을 깨고 나는 “제가 대신 내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교수님들은 모두 웃었고 면접 시간이 끝나 방에서 나왔다. 늘 적는 메모장에 내가 받은 질문과 대답만 적어 뒀다. 그 대답이 영향을 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난 고려대에 합격했다.

19살의 나는 어떤 의미로 누군가를 위해 대신 돈을 내겠다고 말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인 대답이었겠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희생이었을 것이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정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답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최종적인 글에 대한 나만의 정의는 생각과 고민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그럼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물을 접하고, 나만의 시선을 정립함으로써 그 의미를 부여함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회상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찬찬히 다시 생각해봤다. 그 고민의 결론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글을 적고 싶다는 것이었다. 과거의 감정에서 나를 해방하기 위해 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다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글을 쓰고 싶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의 형태가 내 글에 고스란히 옮겨진다면, 사람들은 분명 내 글을 읽고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쓰는 모든 것들은 내 삶이다.

와인을 꿈꾸던 물

하얀솜베개

나는 물이다. 호불호와 무관하게 누구나 나를 마신다. 마실 수 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다른 것에 섞여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좋게 만들기도 한다. 물을 더하면 졸아버린 찌개는 짠맛이 희석되고, 떡볶이는 매운맛이 가라앉으며, 에스프레소는 쓴맛이 흐려져 산뜻한 아·아가 된다. 개성 강한 맛들에 섞여 전체를 위한 용화를 돕는 것, 그것이 아무 맛도 어떤 향도 없는 물의 역할이다. 그것이 사회 집단에서 나의 역할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좋은 사람이자 친구로 여긴다. 내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마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나와 같이 물 같은 존재가 집단의 극화를 방지하는 에어백이자 유사시 중화의 핵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갈등을 싫어해 나의 의견만 강요치 않고 상대에 귀 기울이는 내 태도를 보통 '배려'라고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배려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에 나는 어느 집단에 가도 문제없이 어우러지며, 대다수 구성원에게 배려심 많은 착한 사람 이미지로 수용된다.

그러나 물은, 무언가와 섞일 때마다 물 자체의 정체성을 잃는다. 물에 녹차 티백을 넣고 우리면 그 물은 '녹차'로 불린다. 물에 커피 가루를 넣고 저으면 그 물은 '커피'로 불린다. 물에 라면을 넣고 끓이면 그 물은 '라면'으로 불린다. 물은 무엇과도 섞일 수 있지만, 그렇게 섞인 순간부터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된다. 물의 본성은 무색, 무취, 무미. 3무無에 다른 향미가 덧입혀지면 물은 본성을 잃은 채 이름까지 개명당한다. 물은 더해진 향미를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한 영원한 조연, 엑스트라, 혹은 무대장치일 뿐이다.

나는 물이다. 섞일 때마다 자신을 잃는 물이다. 어떤 사회적 집단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지만, 그렇게 진짜 '나'가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게 된다. 갈등을 방지하고 관계와 감정을 중시해 상대를 고려하며 언행 하면 그는 나를 폭신한 솜베개처럼 편안하게 여기지만, 이것이 반복될수록 '나'는 흐려져 간다. 나조차 나만의 특성

과 선호와 개성을 단언하지 못한다. 성인이 되고도 한참을 그렇게 살아왔던 나는 이미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나'의 구성 재료가 무엇인지조차, 내가 속하거나 속했던 관계와 사회적 집단에서 부여된 이름들을 떠나서는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혐오와 갈등을 숫돌 삼아 날을 버린 말과 글이 정신의 살결을 찢어내고 후벼파는 오늘의 시대에 물과 같은 사람은 분명 필요하다. 파, 마늘, 고추, 된장같이 강한 재료들도 물을 통해 엮여 맛있는 찌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사회에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을 이유는 없다. 나도 물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다. 있어도 없는 듯, 그저 편안하기만 한 사람 말고, 아무나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매력을 잔뜩 뽐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타와 구별되어 '나'로서 인식되고 기억되기 위해 필요한 내 고유의 색이, 향도, 맛조차 없는 이런 결핍의 생을, 하나의 존재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것이 부재한 듯한 이 결여의 삶을 벗어나고 싶다.

평범하다 평범해 언제 마셨는지 따위는 기억의 한 구석조차 점유하지 못하는 일상의 물 말고, 수년이 지나도 그날의 공간과 상대와 향미가 선히 떠오르는 특별한 비일상의 와인이 되길 꿈꾼다. 본연의 색을 온전히 뽐내는 예쁜 빛깔, 자신임을 선언히 드러내는 고유한 맛과 향기로 주변의 공기와 상대의 감각을 가득 채우는 그런 와인.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있더라도 내 고유한 색과 향과 맛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길 꿈꾼다. 누군가 나를 상기했을 때, 나의 색깔과 향미도 함께 휘감겨 떠오르길 바란다. 지금처럼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만, 어쩌면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아무렇게나 형용할 수 있는 그런 싱겁고 멍멍한 보편적 용어로만 나의 개성이 정의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흥진을 묻혀 보니, 자신만의 고유를 미처 득하지 못한 부족, 결핍, 미완의 상태라 여겨왔던 물은, 그가 지닌 없음無 그 자체가 타자와 구별되는 하나의 색이자 향이고 미였다. 주지하듯, 무색, 무취, 무미는 물의 본질적 특성이자. 그러한 없음의 있음에서 기인하는 비어 있음은 다른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부재의 속성에서 도출된 타他에 대한 수용성은 물의 또 다른 불가분한 특성으로 자리 잡는다. '좋아요', '하트', 조회 수로 관심이 정량화되고 개성들이 경쟁하는 오늘날엔, 각자 자기 색깔을 더 짙게 더 두텁게만 덧칠해가는 이 형형색색 자기 PR의 시대엔, 무색도 희귀한 하나의 색이다. 귀한 색이다, 자신을 매개로 자연스레 서로에게 스며드는.

그러니 물이 물로서 존속하기 위해선, 상기한 자신만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하여 수행하기 위해선, 다른 성질과 섞이지 않은 채 본연의 순수를 유지해야만 한다. 합칠수록 태초의 순수에 가까워지는 빛과는 달리 물감은 섞을수록 탁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와 섞임 없이 나 홀로 투명하다면 이는 부존재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산구름 위 고고한 성인도 아닌 한낱 필부가 붉은 먼지 가득한 이 지상에 머물며 상시 맑음을 지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색은 접하되 과도한 착색은 피하며 언제나 정수에 힘을 쏟는 것. 필요한 경우 자정 능력을 넘어서지 않을 정도로만 물든 채 채색하곤, 다시 물 본연의 투명한 맑음으로 되돌아가려 노력하는 것. 그렇게 치우친 선입견 없이 다름을 품을 수 있는 비어 있음을 유지하는 것. 남들처럼 멋지고 화려한 색채를 뽐내진 못하더라도 계속해 먼지를 닦아내며 투명하고 무無색한 물의 정수, 명경지수를 향해 나아간다면 천연색의 다양한 사람들은 내게 와 자신의 형과 색을 비춰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물은 기준이 된다. 무엇도 섞이지 않은 순수이기에, 다름을 비교하는 표준이자 척도가 된다. 물의 어는점=0°C로, 끓는 점=100°C로 정했던 것처럼, 물 1ℓ=1kg으로 정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 나의 판단에 비추어 ‘나쁜’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구분하곤 한다. 나처럼 물 같은 사람에게도 나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여길 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투명한 색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어떤 편견이 나를 흐리게 했다면, 판단은 오염되고 결과값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이들은 과거 축적된 나의 언행에 비추어 현재 나의 판단에 믿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이는 딱 하나의 반례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귀납적 추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에 근거한 기준이란 이상적 결과인 등식에만 집중하면 튼튼한 연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를 도출해낸 실험실적 전제를 맞추지 못한 수많은 근삿값들의 귀납적 향연이다. 기준은 상수를 전제하나 물의 성질은 순도, 온도, 압력 등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물도 그렇고, 그 물을 닮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이런 근삿값 간 오차를 줄이고 연역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기능케 하기 위해 순수한 물, 1기압, 해수면, 4°C 등 다양한 객관적 전제들이 설정되고, 물리적 표준인 원기原器도 만들어진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좋고 나쁨’에 관한 주관적 판단의 오차를 줄이려 물 같은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옳고 그름’에 관한 다양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그러한 표준적 합의를 법이라 명명하며, 그의 물리적 명기인 성문법전도 만들어진다.

나는 물이다. 오랜 자기혐오와 부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물 같은 사람이라 불린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떨 수 없는 본성이 물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나는 ‘나’를, 없음의 있음을, 쓸모없음의 쓸모를 받아들여야 한다. 두드러지는 색과 향미가 없기에, 어떤 다름도 치우침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비어 있음’을 지닌 사람. 것처럼 투명한 색이기에, 각자의 색을 발하느라 비교와 경쟁이 일상인 오늘날 사람들에게 충돌 없이 편안한 비밀상을 주는 사람. 어떤 강렬한 물감도 그의 색 그대로 풀어줄 수 있기에, 상이한 색들도 하나의 색으로 녹여 내 어우러질 수 있게 하는 사람. 채색된 사회에 어울려 물들되 본래의 맑음을 영구 손실치 않으려 끊임없이 자정하는 사람. 그러한 순수를 바탕으로 누군가에게겐 좋고 나쁨의 판단 준거가 되어주는 사람. 이제는 더 넓은 범위에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판단 준거를 체득하려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나’였다. 고유한 매력과 개성이 결여된 미완의 상태가 아니라, 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정체성이었다.

밍밍한 맹물 대신 예쁘고 향긋한 와인이 되길 꿈꾸던 나는 이제 물다운 물이 되기를 바란다. 툭 떨어진 맥물 한 방울로도 금세 물드는 물인 만큼, 지속적인 정수 노력을 통해 나의 본성을 갈고 닦아 반들반들 거울 같은 물이 되려 한다. 그 잔잔하고 청명한 수면 위에, 이제는 나만의 주관적 기준을 넘어선 사회의 객관적 규범을 선연히 비추어 내어 옳고 그름의 판단 준거를 마음 깊이 내재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지금껏처럼, 누군가 나를 떠올리면 선함이 선하게 피어나는 사람임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물다운 물로서 계속 존재하며 사회에 역할 해낼 수 있다면, 총천연빛 세상에서 무색도 하나의 선명한 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언젠가 나와 같은 어느 이가 자신이 몰개성이라며 아파하지 않으리라.

감정과 열망

해환

나를 성장시켜 준 가장 큰 감정은 열등감과 좌절감이다. 행복으로 인한 동기부여는 쉬이 사라졌던 것 같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보이지 않고 막연했던 감정은 나를 유혹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게 했다. 담뱃갑에는 담배를 끊었을 때의 긍정적인 모습보다 끊지 않았을 때의 후유증을 자세히 보여준다고 한다. 담배를 필 때 안 좋은 점을 알려주는 것이 금연에 있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것 같다. 어렸을 때 공부를 하는 감정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감정이지만 나이가 차고 이십 대가 한 칸씩 사라지며 느끼는 점은 이제는 정말 이 시험이든 공부든 끝을 내지 않으면 인생이 끝자락으로 가겠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무게를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려야 하겠구나 하는 점이였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열등감은 꽤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다. 쉬고 싶을 때나, 탄짚을 하고 싶었을 때나 나는 공부를 놓지 못했는데, 지워지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아버지에게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로 인한 스스로에게의 열등감이 나를 끝없이 달려가게 만들었다.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나를 쉽없이 깎아내리지만 그와 동시에 나를 달려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이 감정을 지금 당장은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 이 감정에 대한 판단이 끝이 나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감정이 지금 나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 정리가 끝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도록 놔두고 있는 것 같다.

사실 해결해야 한다면 해결해야 하는 감정이기도 하겠으나, 이를 놔두는 것에서 내가 어떤 사람임이 느껴졌다. 나는 내 스스로의 모습과 감정, 그리고 행복과 같은 것보다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훨씬 중요히 여긴다는 것이다. 내가 좀 우울하면 어때, 내가 좀 슬프면 어때, 내가 좀 힘들면 어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그게 없으면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스스로가 한심할 수 있지만, 그런 모습까지 한심해하면 그때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과제를 읽으며 느꼈던 점은, 너무 글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문장 하나 하나가 내 중심에 날카롭게 꽂히는 기분이 들어 너무 힘들다. 스스로를 마주한다는 것은 이렇게나 힘든 것이구나.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의 진정성이라면, 정말 이상할 수 있지만, 나는 이 글을 쓰는 지금이 내가 가졌던 열등감에 대한 가장 큰 난관인 것 같다. 평소에는 공부라는 크나큰 목표가 있어 그런지 힘들긴 하지만 견뎌낼 수 있는 아픔이다. 그러니까 야구선수에게의 근육통같은 것이다. 대부분의 야구선수는 작은 부상은 참고 경기를 뚫는다.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내 마음속의 작은 우울함과 열등감은 품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부상의 근원이 열등감인 점,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어렵다는 점을 문장 하나하나 쓰고 깨달아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겠지만.

너무 당연한 말 같겠지만, 이 열등감과 우울함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한다. 합격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진 필요악의 개념처럼 이 열등감을 놔두려고 한다. 아침의 지친 몸을 이끌게 하는 건 저 감정이 아니면 현재는 나에게 대체재가 없다. 그래서 석 달 정도만 이렇게 데리고 살아보려고 한다. 암도 나의 세포라고 하지 않는가. 암과는 다르게 이 감정은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지울 수 있다. 지금은 필요하니까 놔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감정에 끝은 없지만, 이 글에는 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쉬이 끝내기는 어려운 글이다. 정말 같이 가기 힘든 감정이지만, 계속 끌고 가야만 하는 내 열등감처럼.